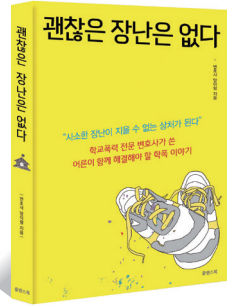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함께 해결해야 할 학폭 이야기

〈괜찮은 장난은 없다〉

지은이 양이림
퍼넌곳 도서출판 숲단스북



사소한 장난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일삼아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교내 상담에서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이 학교폭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변명 뒤에 숨은 피해 사례들을 통해 왜 그것이 학교폭력인지 담담하게 알려준다. 제주시와 세종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한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학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어른이 함께 길을 찾아야 할 학교폭력의 실제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냈다. 저자는 특히 악랄한 학교폭력 사례보다 평범한 아이들끼리의 갈등과 다툼, 관계 맺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에 주목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앞서 고민할 것을 당부한다. 새 학기는 통상적으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친구들과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심심풀이 상대구나, 너무 화가 나고 슬펐어요, 그게 장난이었고요? 영식이가 꼭 알았으면 좋았어요, 나는 너랑 한 번도 장난을 친 적이 없다고, 나는 언제나 네 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영식은 장수의 마음이 이해되나요? 아직도 그게 장난이었고 생각하나요? 서로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영식이가 취지를 바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글로써 되새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장수라면 과연 나는 그 모든 행동이 그저 장난이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장난으로 인한 돌에 깨구리는 말이 죽습니다.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영식이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였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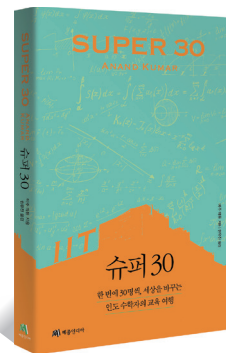
무엇보다 먼저 장수에게 진정된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식이의 잘못된 행동으로 장수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면, 지난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었다는 핑계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말고, 장수에게 자신이 비쳐 장수의 고통과 상처를 살피지 못했음을 늦게라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든 그전에 이

026 < 책읽은 말은 달다 >



책 읽은 마음을 다잡는 것만큼 읽을 책을 고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학생들 혹은 온 가족이 함께 읽어도 좋을 새로운 책을 <내일교육>이 꼼꼼히 살펴 소개합니다. 격주로 찾아올 두 권의 새 책, 기대해주세요. 편집자

세상을 바꾸는 인도 수학자의 교육 여행



〈슈퍼 30〉

지은이 비주 매튜
퍼넌곳 메종 인디아

미국의 MIT만큼 들어가기 어렵다는 인도공과대학 IIT에 20년이 넘도록 취약 계층의 학생을 매년 30명씩 무료로 가르쳐 보낸 수학 교사가 있다. 바로 인도의 천재 수학자이자 일타강사인 ‘아난드 꾸마르’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헌신과 사랑으로 극빈층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아난드의 감동 실화가 국내에서도 책으로 출간됐다.

책 제목인 〈슈퍼 30〉은 아난드 꾸마르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타임〉지는 슈퍼30을 아시아 최고의 학교로 선정한 바 있다. 학비가 없어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합격하고도 유학을 포기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아난드 꾸

마르는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기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그는 교육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인도 국가 훈장인 빠드마 쉬리상을 수상했다. 평소 교육과 보건 복지 분야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뿐 아니라 새 학기를 맞아 동기부여가 필요한 수험생에게 이 책을 권한다.

경험이 제 커서 속에서 Super 30의 열매가 되었습시다.

저는 바로 콜카타에서 태어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던 동생에게 연락했고, 함께 Super 30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동생은 아난드도 저를 많이 도왔지만 아난드는 본격적으로 Super 30의 강의를 맡기로 했습시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 거느리지만 계속 있는 학생들은 명실공히 IIT를 목표로 속력을 포함하여 전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했습시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족들 모두 어떤 일인지는 몰랐다고 말씀하셔요. 그동안 수학 수업으로 모든 자금을 지원으로 하고 어머니는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했습시다. 학생들이 아무 평해도 받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시다.

첫 상공 이후 기부금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왜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지 물었습시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셔요.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비하르에서도 열정과 열망이 있다면 있다면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고 싶었습시다. 자선과 인과와 복록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이요.

42 / 43